

SK하이닉스, 독거노인에 AI 스피커 지원

대화·음성제어 '실버프렌드' 무상 서비스

SK하이닉스가 독거노인에게 대화, 음성제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실버프렌드'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SK하이닉스 박성욱 CEO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프렌드 주요 서비스는 대화 기능과 전자 제품 음성제어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스피커를 활용한 감성 대화, 즐겨 듣는 옛 노래 재생 등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경감시켜준다.

또한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조명스위치를 설치해 음성으로 TV와 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실버프렌드는 위험상황 방지 역할도 수행하



SK하이닉스가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실버프렌드' MOU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SK하이닉스 박성욱 CEO(오른쪽).

게 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산하 지역 거점 및 수행기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등 제공된 기기의 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00가구에 '실버프렌드' 패키지를 내년 말까지 무상 제공하고, 이후 효과성이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8일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 재개장식에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주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 개장

호텔신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으로 선정된 제주시 동광로 소재의 '시니어손맛아리랑'이 2018년의 첫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으로 재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1호점을 재개장한지 4년 3개월만에 20호점을 돌파했다.

20호점은 권경림(77세), 박남순(73세), 김연순(72세), 고기선(69세) 등 어르신 4명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 아버지날을 재개장 날로 정했다.

시니어손맛 아리랑의 영업주들은 역대 맛있는 제주만들기 영업주 중 나이가 가장 많다. 현재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네 명의 나이를 합치면 291세에 이른다. 기존의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들이 생계형 영업인 것과 달리 20호점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요리기법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하루에 매출 10만원을 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됐다.

이에 호텔신라는 식당 운영을 맡은 어르신들과의 면담과 인근 관공서와 사무실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한 주변 상권조사를 바탕으로 20호점만의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노하우를 전수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호점은 아버지날에 개장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데 맛있는 제주만들기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 서민금융 이용수기집 발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이용자의 수기를 엮은 '절망과 희망의 순간들'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수기집에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다가 취약계층 자립자금, 전통신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자영업자 지원대출, 개인·프리워크아웃, 바

퀴드립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해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23편이 담겼다. 모두 지난해 개최한 서민금융 이용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글이다.

책자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 지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







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금융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분이 희망을 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민조의 운세 5월 9일 (음 3월 24일)

민조 역학 학당(02-713-8207 www.kimminjo.co.kr)

-  48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쉽게 이뤄진다. 60년생 동려와 안정으로 손재수가 있다. 72년생 실질적인 협조를 만나게 되니 도움이 크다. 84년생 일에 방해자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라.
-  49년생 과거에 베푼 덕을 보게 된다. 6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73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공돈을 기대 하지 마라. 85년생 화초가 습기가 너무 찬 곳에 있어 뿌리가 썩는 격이다.
-  50년생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 보답이 크게 온다. 62년생 모임에 적극 참석하여 스트레스를 풀게 된다. 74년생 교통사고나 화재를 당 할 수 있다. 86년생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커다란 성과를 낸다.
-  51년생 동업자와 일하는 재미가 있어 하루가 즐겁다. 63년생 어두운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된다. 75년생 귀인이 와서 도와주니 일이 수월해진다. 87년생 차분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꼼꼼히 일을 하니 보람이 있다.
-  52년생 투자한 만큼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64년생 곤란한 처지에 빠지니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라. 76년생 상대방과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군소리가 없다. 88년생 주변 변화에 능동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라.
-  53년생 대충 적당히 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5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77년생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되고 반가운 소식이 온다. 89년생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  54년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군인지 살펴보라. 66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근심걱정이 있다. 78년생 완전실이 있어 힘든 일이 생긴다. 90년생 적은 돈은 생기지만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되니 방심마라.
-  55년생 잘못된 판단으로 일의 진행이 더디게 된다. 67년생 굶어진 속대도 삼발에 있으면 곧아 진다. 79년생 절처봉생으로 되살아 나게 된다. 91년생 쓸데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 구설수로 고생하게 된다.
-  56년생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마라. 68년생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 대접대 받게 된다. 80년생 동업자의 배신이 있어 후회하게 된다. 92년생 헛바닥에 귀신이 붙어 말로 상처를 받게 된다.
-  57년생 충실이 작용하여 가슴이 아프고 편하지 않다. 69년생 원진살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을 듣게 된다. 81년생 금전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93년생 애스런 일이 해결되어 마음이 가볍다.
-  58년생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 70년생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섭섭한 일이 있다. 82년생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상할 수가 있으니 계단을 잘 살펴라. 94년생 사소한 다툼이 크게 되니 조심하라.
-  59년생 좋은 벗을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된다. 71년생 육신이 피로 할때는 폭 쉬는 것이 좋다. 83년생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95년생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비바람을 피하려면

평생을 무난하고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희유한 일이다. 사주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는 것이다. 비바람이 돌풍으로 변하던 지난 4월 초 그 날이 임신(壬申) 일이었다. 봄에 맞는 임신 일은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이 자연의 기운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상당한 비는 아니었다. 그런데 빗줄기는 저녁나절 가까워서는 맹렬한 바람 소리가 건물들을 휘돌아서는 부딪치는 곳마다 무서운 소리를 내며 매섭게 휘몰아치는 돌풍 그 자체였다. 사실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한국은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피해가 대륙 보다는 적은 편이다. 미국처럼 평야나 땅이 넓은 곳은 '토네이도'라 해서 집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 올리고 심지어 바람 소용돌이 속으로 집과 자동차가 끌려 올라가는 일이 허다하다. 자연현상 속에서 바람의 위력은 순간에 주변을 초토화 시키고 이수라장을 만들어 버린다. 그 피해 현장을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생사에 있어서 이렇게 돌풍과 같은 바람이 불 때가 있다. 인생의 높낮이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 내지 방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연현상을 어찌하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대처를 하면 그 피해를 축소시킬 수가 있듯이 말이다. 지난달 초에 인묘진(眞卯辰) 목국(木局)의 묘(卯)와 신자진 수국(申子辰 水局)의 기운이 만나 비와 바람을 몰아왔다. 자, 이를 가정사에 대비해 보자. 묘(卯)의 아리따운 여자와 신(申)의 기백이 넘치는 남자가 만났다면 어떠한 상황이 도래 될지는 비바람 태풍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이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정이 박살나면서 비바람이 아니라 피바람을 몰아 올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럴 때 부딪히면 그 피해는 마치 돌풍이 몰아친 후의 현상과 같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겠는가?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사람의 일이란 게 묘해서 영웅은 미녀를 좋아하듯 첫 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났다면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사주를 보고 알아야 한다. 아니면 참을 인자 세 번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참지 못했을 때 그 후의 불상사는 후회할 들 때는 늦는 것이다. 인생의 비바람, 못 피하는 것이 아니기에 귀담아 들어야 하는 지혜를 갖추어 보길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3	2				
3			8			1		
			6				2	
	9	8						2
5			9		1			3
6						9	7	
	4				8			
		3			9			6
			4	6			8	1

	9	5		2	4			
1			5					9
8			1				4	
	1	7		3	9			
			8	4			7	2
		4			5			6
		8			3			9
			2	8		3	7	

스도쿠 정답								
1	8	2	9	5	4	6	7	3
9	5	7	6	2	1	3	8	4
6	9	4	8	1	5	9	2	7
7	4	6	5	8	2	1	9	3
8	9	1	7	6	3	4	2	5
2	1	5	9	4	8	6	7	3
8	2	9	4	6	7	5	1	3
4	6	1	7	5	8	2	9	3
5	7	9	2	1	6	8	4	7
7	4	9	8	2	1	5	6	3
6	1	5	9	4	7	8	2	3
9	8	2	5	1	6	7	4	9
8	2	4	1	7	8	6	9	5
1	6	9	2	5	4	8	7	3
5	7	8	6	9	1	2	3	4
2	5	7	4	6	1	9	8	3
4	6	8	9	5	2	7	1	3
8	9	1	7	2	3	5	6	4

문제 제공= 보누스